

송아지의 분만과 관리

홍보실

1. 분만증세와 분만준비

가. 분만증세

분만예정2~3주전이 되면 유방이 급진적으로 커지며 외음부는 충혈되어 붓고 투명한 점액이 흐르며 미근부는 양쪽이 커진다.

분만전일이 되면 유방은 크게 팽창되며 점액은 점도가 높아져 갈색으로 변하며 점조한 회백색의 젖이 나온다.

나. 분만준비

① 산실

분만이 1주일정도로 가까워지면 소를 산실로 옮긴다.

산실은 경우에 따라서 조산(助産)을 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4~5평정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 준다.

소를 옮기기전에 2%크레졸액이나 비누액으로 산실을 구석구석 청소, 소독하고 깨끗한 짚을 충분히 깔아주어야 산후 자궁내 세균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여분의 깔짚도 준비해 두고 야간분만에 대비하여 조명시설도 갖춘다.

또한 양질의 건초나 청예사료등도 미리 준비한다.

② 조산도구 및 준비물

○ 크레졸액 : 손이나 외음부의 소독을 위해서는 0.2%액을, 조산도구의 소독을 위해서는 3%액을 준비한다.

○ 옥도밧탈지면 : 태줄을 자른부위에 바르며 난산때도 사용한다.

○ 가위밧실 : 태줄을 자르고 묶는데 사용한다.

○ 밧줄 : 태아를 잡아당길때 사용하며 길이 2~3m짜리 2~3개정도를 준비한다.

○ 세제비누밧세면기 : 손과 그외 여러가지 물건세척시 사용

○ 와세린이나 식용유 : 난산때 사용

○ 수건밧마른걸레 : 송아지의 콧구멍밧 몸체를 닦는데 사용한다.

○ 후레쉬 : 야간밧 정전의 경우에 대비한다.

2. 분만

가. 분만시 관리

○ 분만이 가까워지면 태아는 그림 1과 같은 정상태위를 취한다.

○ 분만이 가까워지면 언제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미소를 철저히 관리한다.

○ 일반적으로 난산일때는 분만을 도와주는데 분만의 진행과정을 보고 적기에 조산해주는 것이 좋다. 분만을 도와줌으로써 약5%에 달하는 사산을 줄일수 있다고 한다.

나. 분만의 진행

① 제 1 단계

○ 거동이 불안하며 예민해져 앉았다 섰다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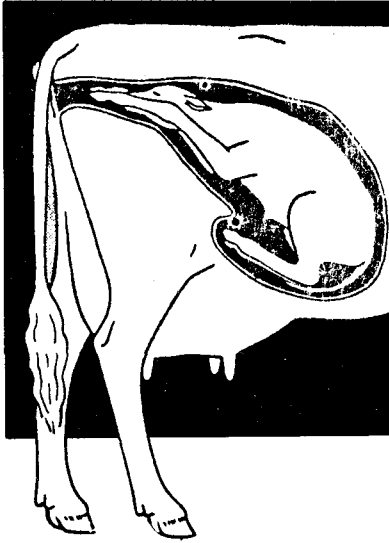


그림 1 정상태위

다.

- 사료를 뒤적인다.
- 진통이 점차 강해지며 제1파수(용모막과 요막 파열)가 진행된다.
- 제1파수후 송아지가 산도에 진입한다. (경산우는 2시간이내, 초산우는 4시간이내)
- ② 제2단계
 - 진통이 더욱 강해지며 제2파수(양막파열)가 진행된다.
 - 소요시간은 경산우가 30분~1시간, 초산우는 2시간이내이다.
- ③ 제3단계
 - 후산기로서 태아 만출후 30분~8시간 사이에 후산을 하게되는데 후산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조산(助産)

가. 조산이 필요한 시기

- 초산우나 어린암소의 분만시

- 분만에정일보다 늦게 분만하는 경우
- 어미소의 산도가 선천적으로 작을때
- 송아지가 지나치게 클때
- 제2파수후 분만진행이 지연될때
- 어미소가 허약하여 제대로 진통을 하지 못할때

나. 방법

- 어미소의 후구쪽을 소독수로 닦는다.
-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소독된 비닐장갑을 낀다.
- 장갑이 터지는 것에 대비하여 손과팔을 소독한다.
- 태아의 위치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 태아의 위치가 정상일때는 송아지의 양쪽 발목에 로프를 맨다.
- 어미소의 진통에 맞추어 당겨준다.
- 당기는 방향은 어미소와 수평방향이 되도록 한다.
-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 양수가 많이 빠져나가서 매끄럽지 않으면 송아지의 몸에 와세린을 바른다.
- 태아가 산도에 진입하기 전에 당기는 것은 위험하다.
- 너무 서두르지 말고 산도에 진입한후에 당기기 시작한다.

4. 난산

태아가 비정상적인 경우나 정상적이면서도 분만이 되지않는 경우를 난산이라고 한다.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처리방법은 수의사의 도움을 받는것이나 수의사를 부를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급박한 상황일때는 인근의 경험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이상태위일때는 어미소를 일으켜 세워서 송아

지를 안쪽으로 밀어넣고 체위를 바로 잡은 후에 송아지의 발목에 로프를 매고 잡아 당긴다.

뒷다리가 먼저 나오는 경우를 역산이라 하는데 정상분만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고 뒷발목에 로프를 매고 당겨주면 된다. 단, 역산할 때 분만이 지연되면 양수가 송아지의 폐로 들어가서 질식사하거나 급성이물성 폐염으로 분만후

폐사되는 예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난산일 경우에는 송아지의 폐사율이 대단히 높으므로 임신우가 너무 살찌지 않도록 관리하고 특히 후보우는 번식적령기에 도달했을 때 수태시키도록 한다. 한편 이상태위의 여러유형을 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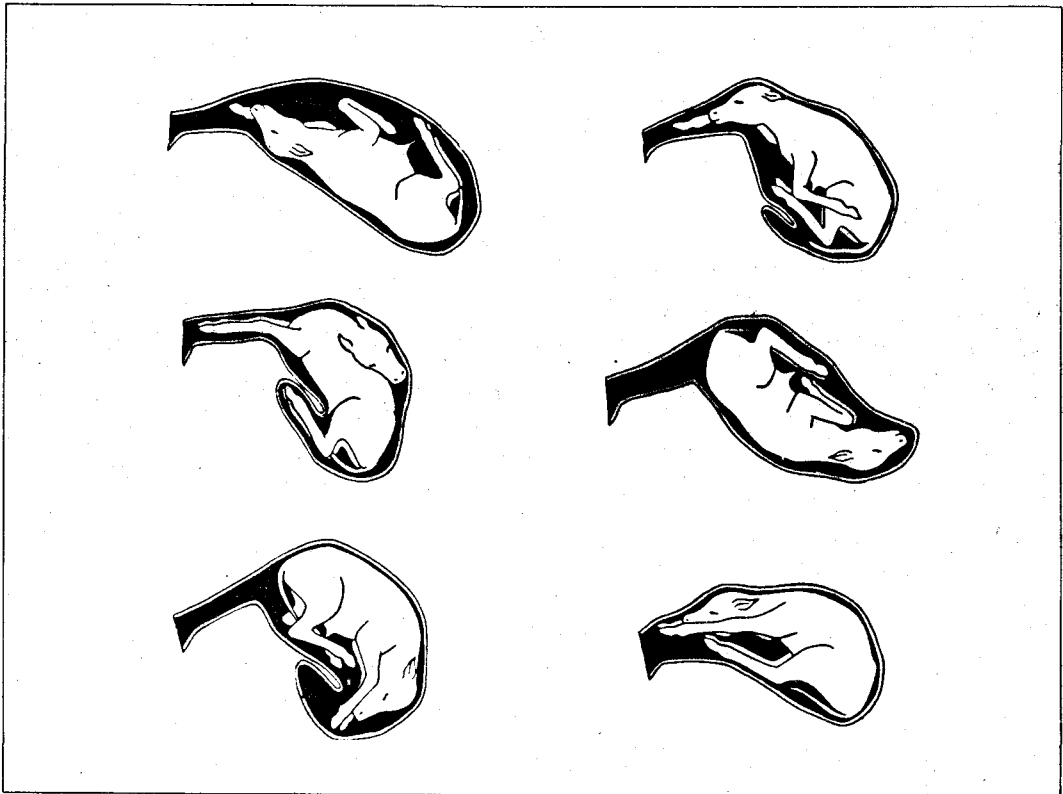


그림 2 이상태위의 여러가지

5. 후산정체

송아지 분만후 30분~8시간 사이에 태아를 싸고있던 태반이 나오는데 이를 후산이라하며 태

반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후산정체 또는 태반정체라고 한다.

대개 분만한 소의 5~10%정도에서 후산정체가 나타나며 발생율이 10%이상이 되면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원인

- ① 운동 부족
- ② 농후사료 과다급여
- ③ 영양불량으로 인한 쇠약
- ④ 비타민A의 부족
- ⑤ 자궁 무력증
- ⑥ 만성자궁염을 앓은 소
- ⑦ 내분비 기능의 장애등이다.

나. 처리

후산정체가 되면 자궁내에 있는 태반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자궁내에 투입하고(예 : 자궁정제2~3정투입) 2~3일후에 수의사에게 의뢰하여 태반을 제거하고 자궁을 세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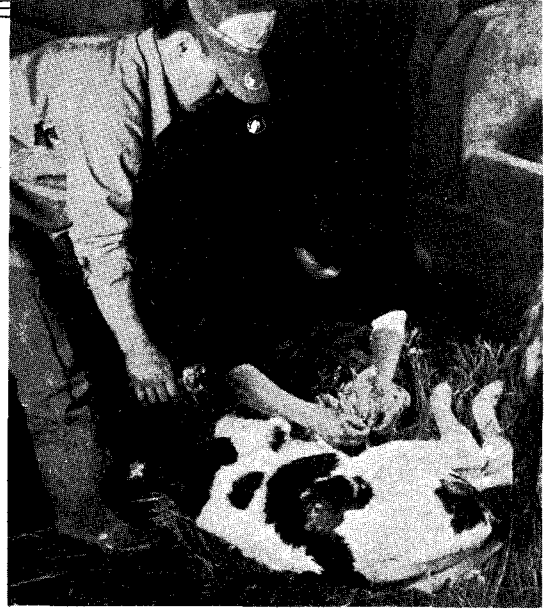
때로는 태반이 끊겨서 일부만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후산의 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6. 분만직후 송아지의 관리

○ 송아지는 태액의 젖어 있으며 액체가 콧구멍으로 많이 들어가면 폐렴등의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분만직후에는 수건이나 마른 걸레로 송아지 콧구멍안을 잘 닦아준다.

○ 호흡음에 이상이 있다든지 담이 끓은것 같은 “가룩 가룩”하는 소리가 날때에는 기관지속에 점액이 들어있는 것이므로 송아지를 거꾸로 잡아서 점액을 완전히 배출시킨다.

○ 송아지의 태줄은 배꼽에서 5~10cm되는 곳에서 실로 묶은다음 가위로 잘라주고 옥도정



기를 발라 소독해 준다.

○ 분만후 가능한한 빠른시간(15~30분) 내에 초유를 꼭 먹인다. 초유중에는 각종 면역물질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튼튼한 송아지로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초유를 먹이도록 해야 한다.

○ 난산으로 가사한 상태의 송아지는 인공호흡을 시킨다.

7. 분만직후 모체의 관리

○ 분만이 끝난 모체는 우선 미지근한 물에 밀기울이나 소금, 설탕을 타먹인다.

○ 이렇게 4~5일간 계속한 다음 정상적인 사료를 급여한다.

○ 피로가 지나칠때는 강심제를 주사한다.

**단미사료 유통제도화로 낙농육우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자.**